공천권 따자… 광주 남구는 '별들의 전쟁중'

〈내달 28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정동채·전갑길·임내현씨 등 10여명 민주당 공천경쟁

정기남·고재유씨는 예비후보 등록 후 사무실 오픈

양형일 "동구 올인" 출마 접어…일각선 무공천 주장도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내 '공천 전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지자들이 지역 여론보다는 중앙당 지도부를 상대로 한 '공천권 따내기'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번 주중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동채·지병문·전갑길 전 국회의원,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 이윤정 지역위원장, 고재유 전 광주시장, 정기남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유동국 전 강운태의원 보좌관, 정영재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이정희 변호사, 박선원 민주당 천안함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 10여 명 가량이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활동중이다.

이 가운데 정기남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장과 고재유 전 광주시장은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선거 사무실까지 마련하고 본격적인 공천 전쟁에 뛰어들었다.

지병문 전 의원과 이윤정 지역위원장도 15일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공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애초 출마설이 나돌았던 양형일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동구에 전력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입지자들 중 지도부와 관계, 지역 내에서 인지도와 역할, 여론 등을 감안하면 공천과정에서 2~3명이 접전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일부 입지자는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정세균 대표와 주류 측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등 지도부 공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남구 지역에서는 7·28 보궐선거가 자칫 지역민의 의사 반영보다는 중앙당 지도부 '입김'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에게 공천을 되돌려 줘야 한다며 무공천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작고,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민주당 공천 과정과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6·2 광주·전남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불거졌던 불협화음이 이번 보선에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활동과 예산확보 등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과 지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UN참전용사 헌화하는 터키 대통령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압둘라 귤 터키 대통령 내외가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아 UN참전용사들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로호 초기분석 정보 교환

한·러공동조사위 첫 회의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오후 2시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러시아 간 공식 전문가 회의인 한·러 공동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러시아 양측은 이번 1차 공동조사위원회에서 나로호와의 통신두절 이전에 확보한 양측의 비행데이터에 대한 초기분석 정보 등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비행데이터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과 러시아 전문가 각각 13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위원회 2차 회의를 이르면 내달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공동조사위 제3차 회의는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항우연 관계자는 러시아의 일부 언론에서 나로호 발사 실패와 관련해 보도된 '한국 측이 제작한 제어시스템의 결함으로 보인다'는 내용에 대해 나로호 비행시퀀스상 폭발 당시까지는 우리 측의 제어시스템이 작동하는 구간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항우연은 또 '폭발 전 페어링이 조기 분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측의 비행영상과 원격측정데이터 분석 결과 분리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천안함 의문점' 안보리에 보내

그동안 천안함 사태 조사와 관련해 의문이 있다고 주장해온 참여연대가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한 문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냈다.

13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 관계자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미 동부시간으로 지난 11일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이메일을 통해 의장국인 멕시코에 보냈다.

참여연대는 20여쪽에 달하는 이 영문 문건에서 "물기둥에 대한 설명에 설득력이 없고 생존자나 사망자의 부상 정도가 어뢰 폭발에 합당한지 설명이 부족하며 절단면에 폭발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를 수 일간 추적하지 못했다는 점, 어뢰 발사를 감지하지 못한 점 등 모두 8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국인 멕시코는 이와 관련, 그동안 안보리 논의에서 NGO가 제기한 자료를 회람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사국들에 회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北 1966년 런던월드컵 출전조차 못할 뻔"

英 국제긴장 우려 비자 거부 검토

영국이 국제적인 긴장 우려로 비자 거부를 검토하는 바람에 북한이 8강까지 올랐던 1966년 런던 월드컵 축구 본선에 아예 출전하지 못할 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공개된 영국정부기록보존소 문서들에 따르면 당시 공산주의 북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영국 정부는 북한이 월드컵에 참가할 경우 긴장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 북한팀에 비자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1966년 월드컵은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13년 뒤, 그것도 냉전이 한창인 시기에 열리게 돼 있었다. 월드컵 개최 수개월 전에 작성된 영국 외교부 메모는 "이 문제를 푸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북한팀에 비자를 거부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메모는 "비자를 거부할 경우 결과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메모는 "국제축구연맹이 영국축구협회에 어떤한 팀도 비자가 거부돼선 안되며, 그럴 경우 월드컵은 다른 곳에서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권력기관 견제·감시 강화"

우윤근 법사위원장

"개헌 시기·방향 신중해야"

"민생법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충실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우윤근 민주당 의원(광양시)은 14일 "그동안 정쟁에 의해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법사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법사위 운영과 관련, 우 위원장은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며 "상임위 간의 이견이 있는 법안은'상임위 연석회의'나 '전원위원회'를 열어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 "세종시 수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장 좋은 해법은 '결자해지'로 본다"고 밝혀 정부 측의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 우 위원장은 "큰 틀에서 권력구조 개편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정략적 접근이나 국면전환용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스폰서 검사 논란과 관련, 우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왜곡된 관행을 척결하려는 검찰의 의지"라고 지적했으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미국식 '기소배심제도'의 입법 추진에 대한 타임스케쥴과 함께 상설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법원, 법무부, 감사원 등 소위 힘 있는 기관에 대한 입법부로써의 견제에 감시 기능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 90년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93년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 18대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원내수석부대표 시절 협상파로 통했지만, 독일식 의원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소신파이기도 하다. 부인 위희욱(47)씨와 1남1녀.

▲광양(53) ▲전남대 법학 박사 ▲변호사(사시 32회) ▲17·18대 의원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임동욱 기자 tuim@

"FTA 해결 실마리 찾겠다"

최인기 농수산위원장

"농어민 권익 최우선 고려"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어촌, 농어민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개 후반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은 14일 "농어촌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이 같이 각오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FTA 체결에 따른 농업피해, 농가 부채, 쌀 가격 폭락, 쌀 관세화, 농협법 개정안 등 산적한 농업현안을 국회의 울타리, 특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어민의 생활안정 및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임위 운영 원칙과 관련,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과 민의, 특히 농어민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상임위를 운영하겠다"며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합의처리를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이기도 한 최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바쁘겠지만 나주 혁신도시 건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나아가 지원의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위원장은 농림수산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 지난 1966년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내무부와 지방의 요직을 두루 거치는 등 정통 내무관료로 성장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로 재직할 때에는 정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사전 보상 방안을 설득, 관철하기도 했다.

17대 총선 때 '탄핵 돌풍' 속에서도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대인 관계가 넓고 판단력이 예리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부인 황미자(64)씨와 1남3녀.

▲나주(66) ▲서울대 법대 ▲미국 존스홉킨스대 대학원 ▲전북·충남 부지사 ▲내무부 차관보 ▲광주시장 ▲전남지사 ▲내무부 차관 ▲농림수산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17~18대 의원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